

엔터테인먼트

Entertainment

일본 언론 대거 방한 김태희 집중 인터뷰

마이니치신문과 산케이신문, 키네마순보 등 일본 유력 언론 매체들이 대거 방한해 영화 '싸움'을 촬영 중인 CF스타 김태희 <사진>를 인터뷰했다고 소속사 나무엑터스가 15일 밝혔다.

지난 13일 서울 강남의 한 카페에서 3시간 가까이 진행된 이번 인터뷰에서 일본 주요 매체 기자들은 김태희가 생각하는 일본의 문화와 영화, 아시아 합작영화 등에 대해 질문을 던졌으며, 특히 김태희가 이누도 잇신 감독의 영화 '조제 호랑이 그리고 물고기들'을 좋아한다고 말하자 상당한 호감을 보였다고 나무엑터스는 설명했다.

나무엑터스는 또 다음달 13일 개봉을 앞두고 있는 '싸움'에 대해서도 높은 관심을 표명했다고 덧붙였다.



<배슬기>

신곡 속에 익숙한 멜로디가...

'샘플링 곡' 전성시대

2007년 최고 히트곡으로 꼽히는 원더걸스의 '텔 미'는 완전한 창작곡이 아니다. '텔 미'는 프로듀서 박진영이 스테이시 큐의 1980년대 히트곡 'Two of hearts'의 일부분을 샘플링해 만든 곡이다.

아름다운 멜로디와 슬픈 가사가 인상적이었던 이현우의 '헤어진 다음날'은 곡 자체도 좋았지만 곡의 도입부에 삽입된 비발디의 '사계' 중 '겨울'의 2악장이 깊은 인상을 남겼다.

'샘플링'이 인기가요의 공식으로 자리 잡고 있다.

▲**귀에 쏙 와닿는 멜로디**
샘플링으로 가장 많이 활용되는 장르는 클래식 음악이다.

윤종신, 조규찬, 방시혁 등 유명 작곡가들에게 곡을 받아 솔로 2집 앨범을 발매한 배슬기는 비제의 오페라 '카르멘' 중 '하바네라'를 샘플링한 타이틀곡 'say'로 활동을 시작했다.



<신혜성>

많은 이들에게 친숙한 '하바네라'는 가수 박지윤이 불러 인기를 모았던 '달빛의 노래'에서도 샘플링 됐던 음악이다.

솔로 가수로 확실히 자리매김한 그룹 '신화' 출신 신혜성의 2집 타이틀 곡인 '첫사랑'은 잔잔한 멜로디와 함께 부드러운 바하의 'G선상의 아리아'가 샘플링 돼 있다.

쥬얼리의 '슈퍼스타' 백지영의 '사랑안해' 등을 작곡, 현재 가장 잘 나가는 작곡가로 꼽히는 박근태가 작곡한 일명 '클래식 3중 세트'는 올 음악 시장에서 대박을 터트렸다.

▲**샘플링=팝, 가요, 클래식 등 이미 발표된 곡의 일부를 이용해 새로운 곡의 멜로디, 편곡 등의 구성 요소로 사용하는 작곡 기법.**

▲'월광' '사계' 등 인기

가장 먼저 대박을 친 곡은 상반기 최고 인기 가요였던 아이비의 '유혹의 소나타'. 이 곡은 클래식 음악 중 가장 인기 있는 곡 가운데 하나인 베토벤의 피아노곡 '엘리제를 위하여'를 샘플링했다.

또 오랜 공백을 딛고 컴백에 성공한 양파의 '사랑, 그게 뭔데'에는 파헬렐의 '캐논'이 삽입돼 있으며 휘성의 신곡인 '사랑은 맛있다'에는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비창' 2악장이 깔려 있다.

남규리 등으로 구성된 여성 3인조 그룹 '씨야'의 히트곡인 '사랑의 인사'에는 많은 이들이 좋아하는 엘가의 동명곡이 샘플링 돼 있으며 래퍼 'PK헤만'은 신곡 '못잊어'에 멘델스존의 봄의 노래를 삽입했다.

클래식 샘플링은 팝음악도 예외가 아니다. 국내에서 20만장이 넘는 음반을 판매하며 인기를 얻고 있는 독일 출신

'스위트 박스'가 대표적. 그들은 바흐의 'G선상의 아리아'(Everything's Gonna be Alright), 파렐렐의 '캐논'(Life is Cool) 등 유명 클래식 음악의 선율에 힙합과 댄스 뮤직을 결합한 음악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클래식이 많이 사용되는 이유는 가요에 차용되는 멜로디가 이미 많은 사람들의 귀에 친숙한 레퍼토리로 관심을 받을 수 있어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특히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저작권에서도 자유롭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힌다. 현행 저작권법은 작곡가가 살아 있는 동안과 사후 50년까지만 저작권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역사가 오래된 클래식 음악은 저작권법에 걸리지 않는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너무 빈번한 클래식 음악 사용은 자칫 식상할 수도 있고, 치열한 창작 정신을 훼손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하기도 한다.

/김민기자 mekim@kwangju.co.kr



<원더걸스>

MBC 아나운서들 휴먼 스토리 찾아 나섰다

'네버엔딩 스토리' 이달중 방송

MBC 아나운서들이 대거 등장하는 휴먼 코드의 프로그램 '네버엔딩 스토리'가 파일럿으로 11월 중 방송된다.

'네버엔딩 스토리'는 이재용 김완 태 최윤영 나경은 서현진 오상진 아나운서가 주축이 된 프로그램으로 과거 화제가 된 인물과 현재 이슈의 주인공을 직접 만나 그들의 모습을 생생하게 전하는 프로그램이다. 아나운서들은 타이틀 곡인 '네버엔딩 스토리'를 직접 부르며, 몸매(여자들이 일할 때 입는 일본식 바지)를 입는 등 색다른 모습을 선보이게 된다.

첫 방송에서는 90년대 배우와 가수로 큰 인기를 누리다

가 어느 날 대중의 시야에서 사라진 임상아의 이야기가 소개된다. 노래 '뮤지컬'로 승승장구했던 그가 갑자기 종적을 감추자 세간에는 재미동포 사업가와 결혼했다는 등의 소문이 나돌았다.

오상진 아나운서가 미국 뉴욕에서 '상-아(Sang-A)'라는 이름을 내건 핸드백의 디자이너로 성공한 그를 만났다. 1998년 미국으로 떠난 후 방송에 출연하지 않았던 임상아는 자신을 '지치지 않는 에너지이저'라고 표현하는 등 근황을 전했다.

다른 아나운서들은 2002년 영화 '집으로...'에 출연한 김을분 할머니를 찾아 충북 영동으로 향했다. 최윤영 나경은 서현진 아나운서는 몸매 차림으로 할머니 댁기에 나섰



영화 '집으로...'의 김을분 할머니를 찾아 아나운서들.

며, 이재용 아나운서는 할머니를 위한 선물을 전달한다. 특히 나경은 아나운서는 할머니를 기쁘게 해 드리려고 '통통', '박명수의 황진이 춤' 등을 선보였다.

나경은 아나운서는 이 프로그램의 2회를 촬영하기 위해 11일 남극대륙의 세종기지로 향했다.

/연합뉴스

11 BOX OFFICE

순위	영화	전국관객	전국누계
1	식객	50만 7천151	129만 330
2	색, 계	22만 6천722	26만 9천423
3	비르게 살자	8만 2천769	198만 1천630
4	더 버터플라이	9만 3천427	12만 4천833
5	로스트 라이언즈	8만 5천153	10만 3
6	히어로	4만 9천415	22만 3천979
7	공녀	4만 6천822	134만 9천965
8	킹덤	4만 4천29	22만 4천410
9	세븐 데이즈	1만 5천 8	2만 9천843
10	블랙 달리아	1만 3천892	12만 80

(단위:명)
(자료제공:영화진흥위원회)

순위	TV	방송국	시청률
1	미우나 고우나	KBS1	31.4
2	대조영	KBS1	30.7
3	태왕사신기	MBC	30.2
4	머느리 전성시대	KBS2	26.4
5	무한도전	MBC	23.3
6	이산	SBS	22.4
7	황금신부	SBS	21.9
8	왕과 나	MBC	21.8
9	이현동 마님	MBC	18.7
10	KBS 뉴스9	KBS1	18.0

(단위:%)
(자료제공:TNS리서치)

순위	비디오	장르
1	오션스13	드라마
2	만남의 광장	코미디
3	스피리터맨 3	액션
4	에반 올마이트	코미디
5	제9중대	드라마
6	기담	공포
7	300	액션
8	두사람이다	공포
9	해부학교실	공포
10	넥스트	SF

(자료제공:영화이음)

순위	가요	가수
1	텔미	원더걸스
2	배반	빅마마
3	거짓말	빅뱅
4	돌이러서	이루
5	매일매일	V.O.S
6	사랑에 미치면	임정희
7	한번 더 이별	성시경
8	사랑은 맛있다	휘성
9	못된 남자	엘투엠
10	사랑 하나면 돼	백지영

(자료제공:멜론)

CBS
광주 CBS TV

영·혼음 시도직는 힘

TV강단



이재용



김완태



최윤영



서현진



오상진



나경은



김을분



이재용



김완태



최윤영



서현진



오상진